

US오픈 정상에 오른 클라크의 '사모곡'

고요함이 감돌던 LA컨트리클럽 18번홀 그린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을 확정짓는 원팀 클라크(미국)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클라크는 지난 18일 LA컨트리클럽(과70)에서 열린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클라크가 공동 선두로 경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승컵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2019년 PGA 투어에 데뷔한 뒤 134번째 출전한 지난 5월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하기 전까지 무명 선수였기 때문이다.

클라크는 "어머니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는 없지만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이 아버지의 날인데 항상 믿고 응원해주는 아버지에게



▲메이저 대회 US오픈 우승을 확정짓는 원팀 클라크. 사진=AP/연합뉴스

도 감사하다.' 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3살 때 클라크를 처음 골프 연습장에 데려간 어머니는 도시락에, 운동 가방에, 책가방과 골프백에 "Play Big" 이라고 쓴 쪽지를 자주 넣어줬다. "너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경기해라. 많은 사람을 돕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롤 모델이 되라." 는 뜻이었다.

10년 전 여름,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클라크는 골프를 그만둘 정도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데는 명상과 독서, 기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클라크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번 대회 때도 골프백에 쪽지를 넣어주셨을 것이다. 오늘의 내가 된 건 어머니 덕분" 이라고 말했다.

손흥민 "사우디 이적? NO!"



▲엘살바도르와 A매치 평가전을 마치고 팬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는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가 토트넘 손흥민에게 연봉 42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스포츠 매체 ESPN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천만 유로(약 3,500만 달러)씩 받는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다. ESPN은 "사우디 측은 손흥민이 알이티하드로 합류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알이티하드는 손흥민의 이적을 위해 6천만 유로에 보너스까지 준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 'CBS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또한 지난 6일 개인 SNS를 통해 "손흥민은 사우디의 2024년 목표다. 이미 끝말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며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20일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친선 경기(대전월드컵경기장, 1-1 무승부)가 끝난 후 "아직 그곳에 갈 준비가 안 됐다.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리그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 EPL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도 많다"라며 사우디행에 관심이 없음을 밝혔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역시 "사우디 클럽들과의 소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계획의 일부가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입찰을 받지 못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계속 뛰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크 트라웃 "FA 오타니 5~6억 달러도 가능"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마이크 트라웃(LA에인절스)이 자신이 가진 기록을 오타니 쇼헤이(LA에인절스가 가볍게 꺾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라웃은 지난 21일 '블리처리포트'의 팟캐스트 '온 베이스'에 무키 베츠와 출연해 오타니의 FA 몸값에 대한 질문에 "내 생각에 5~6억 달러는 받을 것 같다.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타니가 자신의 기록(12년 4억 2,650만 달러)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오타니는 올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다. 이에 벌써부터 사상 첫 5억 달러 계약의 주인공이 될 것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기다리고 있는 오타니. 사진=mk.co.kr

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오타니는 올해 들어 이날 현재 투수로 15경기에서 6승 3패 평균자책점 3.13을, 타자로는 타율 .292, 출루율 .377, 장타율 .616, OPS .993에 24홈런 58타점 10도루를 폭발하고 있어 유력한 아메리칸리그 MVP 후보로 꼽힌다. 그는 2021년 아메리칸리그 MVP를 수상한 바 있다.

오타니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 등장하면 어느 팀에서 그의 천문학적 몸값에 베풀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팀으로는 LA다저스가 거론된다.

9				2		6	3	
5				8	6			
	3		4		7			8
		1	5					6
6				1	4	7		
		7					1	5
				4				
3	2					9		8
	6	9	2					1

	1	아	우	2	성		3	이	맛	4	살	
5	점	령		6	당	7	직	자			림	
	입						설					
8	가	산	9	점		10	적	11	응		12	에
	경		13	성	14	실		15	징	크	스	
					용						키	
16	간		17	변	성	18	기		19	수	모	
20	이	간	질			21	본	보	기			